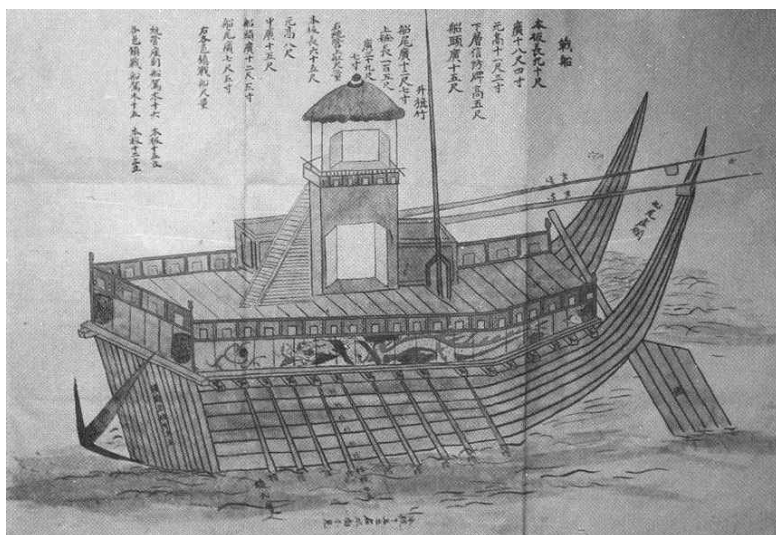


| 해양영화 |



역사와 영화적 상상력 -영화 <명량>을 중심으로-

| 옥태권 | 소설가, 경성대 외래교수
monster-ok@hanmail.net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영화 <명량>과 역사적 사실
- III. 나가며

I. 들어가며

최근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한국영화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영화에서 흥행순위 10위권 안에 역사 영화가 세 편이나 차지하기에 이르는가 하면,¹⁾ <명량>의 경우 1761만 3682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역대 한국영화 흥행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위 팩션²⁾이 영화의 한 주류로 급성

1) 영화진흥공사에 따르면, 2015 3월 12일 기준으로 <명량>이 1위, <광해, 왕이 된 남자>가 6위, <왕의 남자>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2) 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사실을 재창조하는 문화예술 장르, <http://terms.naver>.

장하면서, 역사적 상상력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주지하시다시피 팩션(faction)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깔고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함으로써, 팩트(fact)의 장점인 역사성과 픽션(fiction)의 장점인 오락성을 함께 구현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작업일 수 있으나, 작가의 주관이나 오락성의 추구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함 또한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상상력이란 사실과 사실 사이의 공백이나 여백이 있을 경우, 혹은 잉 혹은 비록 역사기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뒤엎을 만한 완벽한 물증이나 정황증거나 확보될 경우에 한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 엄연한 사실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가하면, 궁극적으로 역사왜곡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더욱이 그 대상이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날 위인을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한국영화사상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화이자 역대 관객 1위를 동원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명량〉이다. 영화 〈명량〉은 단순히 일개 상업영화로서가 아니라, 영화의 대부분이 민족의 영웅 이순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며, 흥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의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 영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감독한 김한민 감독이 “내가 경험해 본 바,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많이 모른다.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지점들이 많

더라. 그러다 보니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³⁾며 역사 의식을 드러낸 것과, 같은 인터뷰에서 “이순신 장군을 어떤 신격화하거나 성웅화하지 않고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보통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그릴 것이란 지향점도 분명했기에, 영화 ‘명량’을 자세하게 살펴 볼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역사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에게 역사가 뭘지 보여주겠다는 감독의 말은, 패기를 떠나 최소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의 소산일 것이며, 지금까지 그려왔던 ‘영웅 이순신의 면모’라는 고전적인 프레임을 깨고 ‘인간적인 이순신’을 그려내어 21세기 한국인과 소통을 시도했다는 시도만으로도, 이 영화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영화의 장면과 난중일기 등을 비롯한 사료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영화 <명량>이 감독의 말대로 ‘일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역사를 제대로 담아낸 영화인지, 혹은 허용 가능한 역사적 상상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창작물인지 그도 아니면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II. 영화 <명량>과 역사적 사실

영화 <명량>에 대한 세간의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친다. 본고에서는 영화에 나타난 사실들을 역사

3) 김한민 감독 인터뷰, OBS뉴스 인터뷰 8월22일

적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영상화 되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영화에 있어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백병전은 과연 벌어졌는가?

영화 명량은 무엇보다 근 1시간에 달하는 압도적인 해상 전투 장면이 압권이라고들 말한다. 명량의 해상전투신에 관한 평가는 국내 언론은 물론 헐리우드에 이르기까지 칭찬일색이다. 압도적인 해상 전투신의 대부분은 함포사격을 중심으로 한 해상전투가 아니라, 조선수군의 판옥선과 왜군의 안택선이 일본의 안택선이 접근전을 벌인상태에서 일어난 소위 백병전이였다. 백병전의 대부분은 근접 상태에서 칼과 창이 맞부딪치는 싸움이였다. 영화 장면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만도 수 백여명의 왜군과 수십여명의 조선수군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영화의 장면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당일날의 난중일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맑다.

아침에 별망군이 나와서 보고하는데, “적선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곧장 우리 배를 향하여 옵니다”고 했다.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330여 척이 우리의 여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이 중과부적임을 알고 돌아서 피할 궁리만 했다.

우수사 김억추는 물러나 아득히 먼곳에 있었다.

나는 노를 바빠 저어 앞으로 돌진하여 지자포·현자포 등 각종 총통을 어지러이 쏘아대니, 마치 나가는 게 바람과 우뢰 같았다.

군관들이 배 위에 뺨뺨이 서서 빗발치듯이 쏘아대니, 적의 무리가 감히 대들지 못하고 나왔다 물러갔다 하곤 했다.

그러나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 싸여 앞으로 어찌 될지 한 가진들 알 수가 없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잃었다.

나는 침착하게 타이르면서, “적이 비록 천 척이라도 우리 배에게는 맞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일체 마음을 동요치 말고 힘을 다하여 적선을 쏘아라”고 하고서,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니 물러나 먼 바다에 있으면서 관망하고 진격하지 않았다.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중군장 김응함의 배로 가서 먼저 그 목을 베어 효시하고 싶었으나, 내 배가 뺨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들이 차차로 멀리 물러날 것이요, 적선이 점점 육박해 오면 일은 아주 낭패다.

곧 호각을 불어서 중군에게 명령하는 기를 내리고 또 초요기를 올리니, 중군장 미조항첨사 김응함의 배가 차차로 내 배에 가까이 오고, 거제현령 안위의 배가 먼저 왔다.

내가 배 위에 서서 몸소 안위를 불러 이르되,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해서 어디 가서 살 것 같으냐”고 하니 안위가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했다.

다시 김응함을 불러 이르되, “너는 중군장으로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로되 적세 또한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한다고 하니, 두 배가 곧장 쳐들어가 싸우려 할 때, 적장이 그 휘하의 배 세 척을 지휘하여 한꺼번에 개미 붙듯이 안위의 배로 매달려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다투었다.

안위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어지러이 싸우다가 힘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나는 배를 돌려 곧장 쳐들어가 빗발치듯 어지러이 쏘아대니 적선 세 척이 몽땅 다 없어지는데, 녹도만호 송여중, 평산포대장 정응두의 배가

줄이어 와서 협력하여 적을 쏘았다

항복해온 왜놈 준사란 놈은 안골포의 적진에서 투항해 온 자이다.

내 배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 무늬 있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놈이 적장 마다시다”고 하였다.

나는 김돌손으로 하여금 갈구리를 던져 이물로 끌어 올렸다.

그러니 준사는 펄쩍 뛰며 “이게 마다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곧 명령하여 토막으로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크게 꺾여 버린다.

이때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치며 나아가면서 지자포·현자포 등을 쏘고, 또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그 소리가 바다와 산을 뒤흔들었다.

적선 서른 척을 쳐부수자 적선들은 물러나 달아나 버리고 다시는 우리 수군에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이것은 실로 천행이다.

물살이 무척 험하고 형세도 또한 외롭고 위태로워 당사도(무안군 암태면)로 진을 옮겼다.⁴⁾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노를 바빠 저어 앞으로 돌진하여 지자포·현자포 등 각종 총통을 어지러이 쏘아대니, 마치 나가는 게 바람과 우뢰 같았다.’는 기술을 통해 함포사격이 전술의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투장면에 대한 묘사는 명량해전 이전에 벌어졌던 앞서 부산포 해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척에 타고 있던 왜적들은 거의 백 여 명이었는데, 우리 편 배에서

4)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갑진일 9월 16일(음 10월 26일)

먼저 지자·현자 총통을 쓰고, 또 장전·편전·철환·질러포·대발화 등을 잇달아 쓰고 던질 적에 왜적들은 마음이 급한지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지둥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요구금으로써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자 반이나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⁵⁾

인용한 부분은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자, 현자 총통을 이용한 함포사격이 조선 수군의 주 전술이었지 백병전은 아니었던 셈이다. 백병전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조선수군의 사망숫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말다.

그대로 어외도에서 머물렀다.

내 배에서는 순천감목관 김탁과 본영의 중 계생이 탄환에 맞아 죽고, 박영남과 봉학 및 강진현감 이극신도 탄환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⁶⁾

위의 난중일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승선한 대장선에서 조선 수군이 입은 피해는 사망자 두 명, 부상자가 세 명에 지나지 않았다. 영화에서처럼 백병전이 발생했다면 단 두 명의 전사자와 세 명의 부상만 발생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함선의 손실만 하더라도 조선 수군은 한 척의 손실도 없었던 반면, 왜군의 경우 31척의 함선이 격침당한 것으로 사료는 기록하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백병전이 발생했다면 조선의 함선도 최소한 몇 척은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명량 전투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이라는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5) 이순신, <난중일기>, 1592년 갑오일 6월 6일(음 7월 14일)

6)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병오일 9월 18일(음 10월 28일)

활용한 전투이기도 하지만, 왜군의 조총보다 조선 수군이 보유하고 있던 함포의 유효사거리가 훨씬 길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 조선 수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병력과 함선을 지닌 왜군을 상대로, 근접전을 펼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순신이 승산없는 백병전을 펼칠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임원빈도 ‘화약무기인 총통 중심의 무기체계와 판옥선으로 대변되는 조선수군의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와 위대한 수군의 리더 이순신에 의해 조성된 소프트웨어적 전투력 요소의 결합으로 드러난 막강한 전투력이 명량해전의 승리요인⁷⁾’이라고 보았다.

영화 화면상으로는 창과 칼이 부딪치는 백병전의 전투장면이 훨씬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벌어지지 않았던 백병전을 그것도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역사적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백병전의 형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님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백병전의 형태도 이순신 장군이 승선한 대장선이 아니라 안위가 지휘하고 있던 배에서 부분적인 백병전의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병전의 형태라고 표현한 것은 본격적인 백병전이 아니라, 어쩌다 헤엄쳐서 조선 수군의 함선에 기어오르려는 왜군들을 긴 창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영화 <명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백병전은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영화에서처럼 백병전이 주된 전투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7) 임원빈, ‘명량해전 승리요인의 재조명’, <이순신연구논총> Vol. 10, No 1/2, (2008), p. 42.

2. 배설은 과연 민족의 반역자인가?

영화 <명량>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 이는 경상 우수사 배설이다. 영화에서 배설은 왜군과 내통하여 이순신 장군의 시해를 시도하는가 하면, 거북선을 불태우고 도주하다 안위의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인물로 그려져있다. 정말 배설은 이순신 장군의 목숨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시해를 기도하고 거북선까지 불태울 정도로 만고의 역적이었을까?

난중일기에도 배설에 관한 대목이 나온다.

1597년 8월 18일

회령포에 갔는데, 수사 배설(裵榘)이 뱃멀미를 핑계대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

1597년 8월 19일

맑다. 여러 장수들이 교서(敎書)에 숙배(肅拜)하는데, 배설(裵榘)은 받들어 숙배하지 않았다. 그 건방진 태도가 말할 수 없었기에 그 영리(營吏)를 곤장 때렸다.

8월 27일 양력 10월 7일<을유>

맑다.

그대로 어란 바다 가운데 있었다.

경상우수사 배설(裵榘)이 와서 보는 데, 많이 두려워하는 눈치다.

나는 불쑥 “수사는 어찌서 피할 생각만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8월 30일 양력 10월 10일<무자>

맑다.

그대로 벽파진에서 머물렀다. 정탐꾼을 나누어 보냈다.

저녁나절에 배설(裵榘)은 적이 많이 올 것을 염려하여 달아나려고 했으

나, 그 관할 아래의 장수들이 찾기도 하고, 나도 그 속뜻을 알고 있지만, 딱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발설하는 것은 장수로서 할 도리가 아니므로 참고 있을 즈음에, 배설(裵榘)이 제 종을 시켜 솟장을 냈는데, 병세가 몹시 중하여 몸조리 좀 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물으로 내려 몸조리하고 오라고 공문을 써 보냈더니, 배설(裵榘)은 우수영에서 물으로 내렸다.

1597년 9월 2일

맑다. 이날 새벽 배설이 도망갔다.

인용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순신은 배설의 일거수 일투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배설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불편한 감정을 곳곳에 발견할 수는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시해를 기도한 적은 난중일기 뿐 아니라 어떤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 만약 그 비슷한 김새만 보였어도 난중일기에 적나라하게 그려놓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량해전 당시에는 한 척도 남아있지 않던 거북선을 불태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배설이 정말로 병중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겁을 집어먹고 전투를 회피한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지만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도망가다 안위의 화살에 맞아 사망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배설의 사망과 관련한 대목은 선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1598 무술 26년, 12월 23일

소문에 의하면 ‘배설(裵榘)이 지난 가을에 나주에서 도망하여 지금은 충청도에 와 있는데, 현몽(玄夢)과 합세하여 무뢰배들을 많이 모으고 있다. 그의 행적이 이미 드러났지만 사람들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선조실록 1599 기해, 3월 6일

전 수사(水使) 배설(裴榘)이 복주(伏誅)되었는데, 그 아비 배덕룡(裴德龍)과 아들 배상충(裴尙忠) 등은 모두 방송하였다.

배설은 지난 정유년 7월 한산(閑山)의 전투에서 패전한 수범(首犯)이었으나 외지에 망명해 있었으므로 조정이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원수 권율이 선산(善山)에서 잡아 차꼬를 채워 서울로 보냈으므로 참수하였다.

인용한 실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원수 권율이 선산(善山)에서 잡아 차꼬를 채워 서울로 보냈으므로 참수하였다'고 사망 사실과 함께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망의 원인이나 시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을 때에는 역사적 상상력의 힘을 빌어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과 날짜까지 명백하게 입증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훨씬 더 비루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사망 장면을 그린다든 것은 영화적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선 왜곡이다.

더구나 배설은 전투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605년(선조 38) 4월 9060명을 녹훈하면서 발행한 '선무원종공신녹권'⁸⁾에 1등 공신으로 이름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 인물이다. 따지고 보면 명량해전에 참가한 12척의 함선도 배설이 부산포해전에서 지켜내지 않았다면, 전투의 승리는 고사하고 싸움을 맞이할 전함이 한 척도 남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극적 효과를 위해서는 대립의 각을 세우는 인물이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동인물의 설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동원하더라도 배설에 대한 영화 〈명량〉의

8)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을 선무원종공신에 책록(冊祿)하는 증서

인물설정은 명백한 오류나 의도적인 왜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설을 극악무도한 인물로 그렸다 해서 이순신의 영웅적 면모가 더 돋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이순신의 영웅화를 위해서 영웅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 한 일은 아닐 것이다.

3. 이순신 장군은 과연 미치후사의 목을 베었을까

사실 여부를 떠나 영화 <명량>에서 우리 관객이 가장 통쾌하게 여기는 장면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칼로 왜장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목을 벤 장면일 것이다. 이 영화에서 구루시마 미치후사는 이순신 장군을 제압할 수 있는 필승의 카드로 긴급 투입된 왜장이며, 왜군 장수 중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스크린을 압도한다. 그런 왜장이 백병전 끝에 이순신 장군에 의해 목이 잘렸으니, 우리 관객이 느끼는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제대로 백병전을 치르지 않았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영화에서처럼 왜장 미치후사의 목을 벤 것은 사실일까? 명량해전 당일 이순신 장군이 직접 기록한 난중일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전략)

항복해온 왜놈 준사란 놈은 안골포의 적진에서 투항해 온자이다.

내 배 위에서 내려다보며, “저 무늬 있는 붉은 비단옷을 입은 놈이 적장 마다시다”고 하였다.

나는 김돌손으로 하여금 갈구리를 던져 이물로 끌어 올렸다.

그러니 준사는 펄쩍 뛰며 “이게 마다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곧 명령하여 토막으로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크게 꺾여 버린다.

난중일기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붉은 옷을 입은 자가 적장 마다시'라고 준사가 가리킴.
- 2) 김돌손으로 하여금 갈구리를 던져 이물로 끌어 올림.
- 3) '왜장 마다시'가 맞다고 준사가 확인 함.
- 4) 명령하여 토막으로 자르게 하니, 적의 기운이 꺾임.

적장 '마다시'를 갈구리를 던져 이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마다시'가 이미 시체 상태이거나 혹은 거의 반주검의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미루어보아 신뢰감이 가는 대목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화에서처럼 백병전 끝에 이순신 장군이 마다시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시체였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던 마다시를 건져올려 토막을 내라고 병졸들에게 명을 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 백병전 끝에 왜장 구루시마 미치후사의 목을 칼로 베어버린 것은, 영화적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관객의 입장에서 통쾌할지는 모르겠으나, 왜장의 후손 입장에서 보면 '토막이 잘린 것만도 수치인데, 백병전 끝에 이순신의 칼에 목을 날아가게 만든 것은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할 법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영화에서 등장한 인물은 구루시마 미치후사인데, 난중일기에는 분명 '왜장 마다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걸 또 어떻게 된 노릇일까?

앞서 인용한 난중일기 속에 '준사는 한산도시절에 안골포에서 적장에게 죄를 짓고 우리 측에 귀순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준사가 자신이 모시던 주군인 '마다시'를 다른 이로 착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안골포에 주둔하던 왜장은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아니라 '간 미치나가(菅達長)'였으며, 명량해전에 참가했던 그의 아

들인 장수 이름이 ‘간 마타시로 마사카게(菅又四郎正陰)’였다 한다. 발음상으로는 ‘마다시’라는 이름과 가장 유사한 인물이 ‘간 마타시로 마사카게(菅又四郎正陰)’이다. 따라서 이날 몸이 토막난 왜장은 미치후사가 아니라 준사의 옛 주군의 아들인 마타시로 마사카게라는 인물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난중일기에서 확인불가능한 미치후사란 인물을 등장시킨 것도 모자라, 이순신 장군이 백병전 끝에 칼로 목을 베기까지 하는 것은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 상상력이란 자료와 자료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엄연히 드러난 자료가 있음에도 가공의 장면을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역사를 모르는 일본에게 역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는 감독의 호언과는 너무 거리가 먼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왜군이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 가면서까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전공을 깎아내리는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4.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려냈는가?

영화 〈명량〉에서 관객이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 중의 하나는 아마도 지금까지 어떤 기록이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새로운 장면일 것이다. 하나는 출정하기 전 막사를 불태우는 장면이며, 또 다른 장면은 탈주하는 병졸의 목을 직접 베는 장면이 그것이다. 출정하기 전 막사를 불태우는 장면은 이른 바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영화적 상상력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손쳐도, 전투가 벌어지기 전 도망하는 병졸의 목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베는 장면은 인간적인 면모가 아니라 잔혹한 장면일 것이다. ‘신격화

하거나 성공화하지 않고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보통 인간으로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을 벤 것이라면, 소통은 커녕 이순신 장군의 인격을 모독함은 물론 오히려 관객들과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든 장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엄청나게 밀려오는 적의 위세에 겁먹고 도망가는 병졸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목을 베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순신 장군이 직접 병졸들의 목을 벤 기록은 없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휘하 장수들이나 병졸들에게 명을 내려 수행할 수는 있었겠지만, 당신 이순신 장군의 손으로 직접 병졸의 목을 벤 장면은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잔혹한 모습에 지나지 않다.

5. 그 밖의 오류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탐망꾼 임준영에 관한 내용이다. 임준영은 명량해전에서 왜군이 쳐들어 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 준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9월 14일 육지로 정찰을 나간 임준영이 돌아와 “일본 함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이 벌써 어란포에 도착했다”⁹⁾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그 부분이다.

영화에서는 탐망꾼 임준영이 폭탄을 가득 실은 일본 함선에 올라타서 아내 정씨여인의 안타깝게 지켜보는 가운데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다. 영화 전체가 이순신 장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영화에서 탐망꾼 임준영은 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인물로, 격렬한 전쟁터에서 정씨여인과의 애뜻한 장면으로 관객들에게 꽤 깊은 인상을

9)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정유일 9월 14일

남겼다. 그런데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탐망꾼 임준영은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뒤에 죽음을 맞이한다. 임준영의 아내를 등장시킨 것은 작가의 상상력을 치부할 수 있으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전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다.

영화 장면에서 또 하나 이상한 장면 중 하나는 대도무문(大道無門)과 관련한 장면이다. 일본군의 장수 도도 다카로라가 출정에 앞서 일 필휘지로 써내려가는 문구가 문제의 대도무문이었는데, 당시의 어떤 사료를 봐도 대도무문이라는 글귀를 사용한 적은 없다. 대도무문은 전직 모태통령이 즐겨 쓴 휘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무협영화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철저한 고증을 했다는 제작사와 감독의 표현을 빌면, 이런 문구 하나도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영화 중간에 조선 수군의 입을 빌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 한 걸 후손들이 알까 모르겠네.” “모르면 호로 자식이제.”라는 대목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가벼운 웃음과 함께 후손들에게 주는 경고로 넘길 수 있으나 ‘호로자식’이란 욕은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 호로(胡虜 : 오랑캐의 포로)는 병자호란(인조14년, 1636년)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여성들이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환향녀의 자식들을 일컫는 말로 알려져 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오랑캐의 포로로 잡혀간 것만도 서러운데, 평생 ‘오랑캐 포로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야했던 아픈 역사가 담긴 욕설인 셈이다. 나라를 당시의 정치인과 양반 사대부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졌어야 할 비난을 돌리기 위해 돌팔매질을 할 희생양으로 만들어낸 것이 ‘호로자식’이란 욕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아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던 욕이다.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 했던 조선 수군들의 입에서 무슨 욕
인들 나오지 않았을까만은, 제대로 고증을 했더라면 ‘호로자식’이란
욕은 피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그 욕을 민초
가 민초에게 하는 꼴은 어떤 수사를 동원한다한들 설명하기 힘든 명
백한 오류이기 때문이다.

Ⅲ. 나가며

영화 <명량>은 모두에 살피 본대로 한국영화사상 최고의 흥행기록
을 세운 영화이다. 국내 정치의 실종으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들에
게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켜, 이 시대에 실종한 리더십을 영상으로 구
현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게 이 영화에 대한 일
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특히 한국영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해상
전투 장면은 명장면으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영화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겪는 오류들, 예컨대 불확실한 고증이나 과도한 역사적
상상력이란 문제점을 영화 <명량> 역시 비껴가지는 못했다.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소박하게 ‘이순신 장군을 활용한 상업영화 한 편 만들
었다’고 솔직하게 고백만 했어도 굳이 검증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작사는 ‘철저한 고증’을 앞세웠고 감독
은 역사를 모르는 일본에게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그것도
여러 차례나 밝힌 터였다.

그런데 막상 난중일기와 사료들을 비교해 본 끝에 내린 결론은, 강

점 못지않게 아래와 같은 오류 혹은 왜곡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영화 〈명량〉에서 지배적인 장면으로 등장한 ‘백병전’ 장면은 이순신 장군이 승선한 대장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시해를 기도하고 거북선을 불지르며 전투 직전에 도망가다 안위의 화살에 죽은 것으로 그려진 배설은 전형적인 왜곡의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3) 영화 〈명량〉에서 백병전에서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목이 베어진 구루시마 미치후사 관련 장면은 가공의 장면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 난중일기에 기록된 인물은 마다시라는 인물임에 비해 영화에서는 구루시마 미치후사로 나온 점도 석연치 않았다.

4) 영화 〈명량〉에서 탈주한 이순신 장군이 탈주한 병사들의 목을 직접 벤 것은, 장군의 인간적 면모보다 오히려 잔혹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장면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5) 그밖에 탐방꾼 임준영, 도도 다카로라의 휘호 ‘대도무문, 수군들이 나눈 대화 중의 욕설 등에 있어서도 오류나 왜곡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역사를 대중화시키는 데 픽션의 영향과 힘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픽션에서의 역사적 상상력이란 사실과 사실 사이의 공백과 역사적 진실 구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상업적 성공이나 개인적 의도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상민도 픽션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실과 허구의 모호함’ 실존인물의 명예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의 강조를 통해 ‘혼탁해지는 진실과 같이 어떤 형태로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팩션으로 인한 왜곡의 위험성’¹⁰⁾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다. 역사의 대중화 못지않게 역사적 진실을 지켜나가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일 것이다.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상 감독의 의도가 영화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거나, 혹은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객이 다르게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안다. 또한 감독 고유의 영화적 상상력이야말로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힘이며, 사료와 사료 사이의 공백을 상상력으로 메울 수밖에 없음도 인정한다. 그러나 영화 <명량>은 명백한 사실마저도 극적 재미와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왜곡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영상문법이나 영화적 상상력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는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면, 어떻게 일본에게 역사의식의 부재를 탓할 수 있을 것인가.

10) 김상민, 팩션-역사의 대중화인가 역사인식의 왜곡인가(3), <역사&문화> Vol.6, (2006), p. 26.